



문항금 장학숙관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정학숙 문항금 관장이 지난 5일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BBP)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주정학숙에서는 5일부터 13일까지 친환경 생활 실천 주간 운영을 통해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일상 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현웅 원장에게 지목받은 문항금 관장은 전주정학숙 입사생 대표인 김철민 자율회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

문항금 관장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캠페인에 젊은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사생 대표인 자율회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며, "다회용 컵 사용 등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

완주군인재육성재단(이사장 유희태)이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주관으로 추진되는 농어촌청소년 진로탐방활동에 참가했다.

진로탐방활동은 중학교 3학년 학생 24명을 선발해 서울시 일원에서 2박 3일간 진행했다.

미래사회 변화 및 새로운 직업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한국융합과학교육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을 방문해 다채로운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벌였다.

이번 활동에는 안동시 청소년 28명도 함께해 청소년들의 교류 활동도 증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관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타 지역 또래와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농협 완주군지부, 추석맞이 사랑의 쌀 나눔

농협 완주군지부(지부장 김대호)는 지난 6일 완주군청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에서 후원하였으며, 완주군지부는 쌀 1,000kg(300만원 상당)을 완주군 관내 노인복지센터에 전달했다.

김대호 지부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여성새일센터, 여성 구직자 역량 강화

김제시(시장 정성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6일, 보건소 3층 직업상담실에서 2024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수료자 25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수료자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구직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체험과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진행했다.

사후관리 주요내용은 취업성공 사례 발표, 자원순환 업사 이룰릴기방 만들기 체험, 기본 수와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료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는 앞으로도 참여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료자들이 성공적으로 새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참여 수료자들은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고 재취업 성공사례 공유 시간을 통해 재취업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 회복으로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김제=곽태 기자

‘함께 일하고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

정읍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정읍시는 지난 6일 연지아트홀에서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차별과 소외를 없애고 남녀 구분 없이 일의 영역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신비랍 고고장구의 흥겨운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진 1부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고, 양성평등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인기 강연자인 김미경 작가가 특별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무더위와 폭우 속에 힘든 여름을 보냈던 지친 일상에 활력을 되찾게 해 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기념식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헌신해 온 여성지도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정읍시는 남녀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성숙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기간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교육지원청, 해외 영어체험 성과 보고·발표회 개최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강)은 지난 5일 2024년 무주글로벌 해외 영어체험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70여명을 대상으로 시청각실에서 성과 보고와 함께 발표회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뉴질랜드 영어체험을 다녀 온 학생들은 학부모들 앞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직접 촬영 및 제작한 브이로그를 상영하고 영어일기와 소감을 발표했고, 이를 지켜본 학부모와 관련 교사들은 큰 호응과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했던 한 학생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이번 해외연수 기간에 방문했던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학부모 대표는 "해외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학부모들이 함께 해외연수를 받는 것처럼 매일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강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지도교사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도와주신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무주의 국제교류 사업이 지역의 특색 사업으로 정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주 글로벌 해외 영어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10월에 학생 해외연수 성과공유 프로그램인 세계시민캠프에 참석하여 해외연수가 지속적인 성장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연수성과와 경험을 도내 학생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청 공무원 부부, 추석 맞아 동충동에 라면 60상자 기탁

남원시 동충동 관계자는 지난 5일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문경훈씨와 환경과 오나경 부부가 동 행정복지센터 찾아 명절맞이 후원 물품인 라면 60상자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최근 추석을 전후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단체와 개인의 지원이 줄어든 가운데 남원시 공무원 부부의 이웃사랑 실천은 특히 귀감이 되고 있다.

이 부부는 2017년부터 사회복지시설과 행정복지센터 등 기관에 매년 후원 물품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기부로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으며, 부부는 나눔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기쁨이 되면서 복지분야에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경훈 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됐으며, 나눔의 기쁨을 배울 수 있고 보람있는 이 활동을 지속하여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차남 동충동장은 "주위의 이웃을 돌보는 짝은



부부의 마음이 감동적이며, 기탁해 주신 후원품은 취약계층 아동기구나 시설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지전대, 완주군 일자리 박람회 참가

전주지전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5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4년 완주군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해,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채용설명회와 취업특강 △채용관 △입사상담관 등이 이뤄졌다.

이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이번 행사 취업컨설팅관에서 전주지전대대학을 포함한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전주대학교 등 지역 대학생뿐만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컨설팅과 MBTI검사 진단을 진행했다.

전주지전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2024년 완주군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지역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이를 통해 지역청년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정읍성 기자



전북자치도, 자매결연 군부대 전복함서 안보 체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자매결연 군부대인 해군 제3함대사령부 전복함을 방문해 현장 안보 체험을 실시하고, 해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순택 안전정책과장, 박정규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위원장 등을 비롯한 도 및 시군 공무원, 도내 병역명문가, 민방위대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전복함은 2014년 1월 5일 취역해 현재도 실전 배치되어 다양한 해상 작전을 수행중인 해군의 최위함으로, 경기함과 인천함에 이어 세 번째로 명명된 함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복함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한 명의 우수 장병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병영 식사 체험과 헬기 및 함정 견학을 통해 해군의 임무와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순택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장은 "전복함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전복함과 교류와 연대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추석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추석맞이 장보기 캠페인에서는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통해 지역 농산물과 생필품을 구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탤다. 이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온정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에 앞장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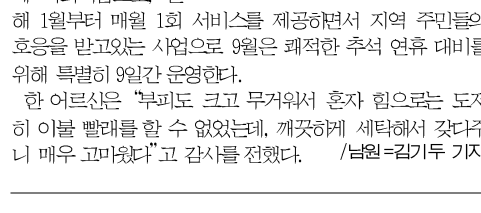
박일 의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장기적 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노암동, 취약 가구 대상 이불 세탁 봉사

남원시 노암동행정복지센터는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2일부터 12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이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탁 서비스는 노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매일 1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있는 사업으로 9월은 폐직한 추석 연휴 대비를 위해 특별히 9일간 운영한다.

한 어르신은 "부피도 크고 무거워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불 빨래를 할 수 없었는데, 깨끗하게 세탁해서 갖다주니 매우 고맙다"고 감사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군,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

완주군이 제7회 생명나눔 주간(9.9.~9.15.)을 맞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의료기관, 민간 등과 함께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을 실시한다.

생명나눔 주간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장기·인체조직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으로 지정됐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캠페인에서는 장기·인체조직기증에 대해 알리고, 기증희망등록에 동참하게 하는 전국 합동 캠페인으로 전개된다.

완주군도 생명나눔 통합 브랜드 희망의 씨앗과 홍보물을 활용해 기증희망 등록 캠페인을 현장과 온라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연 완주군 보건소장은 "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기증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생명나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